

보도시점 4.15.(수) 조간 < 4.14.(화) 14:00 >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
- 신속한 경영 안정과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마련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화)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4.14(화) 14:00 ~ / 서울
- (참석기관) 중기부 및 공공기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가 서강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 등
업계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성공기업(4개사), 중소기업중앙회 등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 지원대상 선별 방법 등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I)·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체계 구축 방안'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연명지원이 아닌 생산성·경쟁력 회복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정부지원 효과성 측면에서 기업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이 처한 위기가 심화·다양화되고, 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원 정책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위기징후 기업이 신속한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우경필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유광복 (044-204-7482)
			주무관	김영현 (044-204-7485)